

'한국 탈춤',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전망

유네스코 산하 평가기구 '등재' 권고... 최종 등재는 12월 모로코서 여는 위원회에서 결정

우리나라 전통 가면극인 '한국 탈춤'이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에 오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1일 유네스코 홈페이지에 따르면 유네스코 무형유산보호협약 정부간위원회(무형유산위원회) 산하 평가기구는 '한국의 탈춤(Talkhums, Mask Dance Drama in the Republic of Korea)'을 심사해 '등재' 권고 판정을 내렸다. 결과는 '등재'(inscribe), '정보보안(등재 보류)'(refer), '등재 불가'(not to inscribe) 등으로 구분한다.

최종 등재여부는 오는 12월 모로코에서 개최되는 제17차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 정부간위원회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한국의 탈춤'이 등재되면 한국의 22번째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기록된다.

△ '한국 탈춤' 유네스코 인류문화유산 등재 확실히

'한국의 탈춤'은 양주별신대놀이, 통영오광대, 고성오광대, 강릉관노가면극, 북청사자놀이, 봉산탈춤, 동래야류, 강령탈춤, 수영야류, 송파산대놀이, 은율탈춤, 하회별신굿탈놀이, 가산오광대, 속초사자놀이, 퇴계원산대놀이, 진주오광대, 김해오광대, 예천청단놀이 등 13개 국가무형문화재와 5개 시도무형문화재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나라 탈춤은 무용, 음악, 연극의 요소가 전부 들어있는 종합예술이다. 특히 관객의 동조나 자유 같은 능동적인 참여까지 포함되어야 완성되는 적극적인 소통의 예술이다.

탈춤은 주로 전근대시대 사회, 계급, 도덕적



하회별신굿탈놀이

(사진=문화재청 제공)

인 모순을 역동적이면서 유쾌하게 풍자해 그 부조리함을 드러내는 내용이다. 등장인물 성격이 과장하고 유형화한 탈을 쓰고 노래와 춤, 연극을 통해 의미를 전달한다.

부조리와 갈등을 드러내 풍자하는데 그치지 않고 화해의 춤으로 마무리되기 때문에 화해와 조화를 위한 전통유산이란 가치도 있다. 내용과 형식의 자유로움은 사회비판적인 주제와 맞물려 현대의 예술창작에도 끊임없이 영감을 제공하고 있다.

문화재청에 따르면 재창조되는 문화적 전통

으로서 공동체에 정체성과 연속성을 부여한다는 점에서도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보호협약의 정신에도 부합하는 무형유산으로 평가받고 있다.

한편 유네스코 평가기구는 이번에 총 46건의 대표목록 등재 신청서를 심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의 탈춤'을 포함해 31건이 '등재' 권고를 받았다. 이 중에는 북한 '평양랭면 문화'(Pyongyang Raengmyon custom)도 포함되어 있다.

/뉴스



전주대학교 박물관 직원들이 학교 발전을 기원하는 마음을 담아 3,000만 원의 발전기금을 기부했다.

전주대 박물관 직원들, 발전기금 기부

학교 발전 위해 다양한 분야 사업 추진 지급 연구수당 일부 3000만원

전주대학교 박물관 직원들이 학교 발전을 기원하는 마음을 담아 3,000만 원의 발전기금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열린 발전기금 전달식에서는 박물관 박현수 학예연구관과 육창민, 박은지, 안정수 학예연구사가 참석했다.

발전기금을 전달한 박물관 직원들은 그동안 정부와 지자체의 위탁교육, 전시, 문화재 조사 등 다양한 분야의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급된 연구수당 일부를 학교와 박물관 발전을 위해 사용하기로 뜻을 모았다.

박현수 학예연구관은 "학령인구 감소와 코로나 등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학교 발전을 위해 일하는 것이 가장 큰 자부심이며, 학교와 지역사회에 더욱 더 기여하고 다양한 문화서비스를 제공하는 박물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진배 총장은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면서 먼저 학교를 위해 헌신하고 솔선수범하며 늘 모범이 되고 있다"며 "기부금은 학교발전을 위해 소중한 곳에 사용하겠다"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장은성 기자

제50회 전북여성백일장 수상작 발표

3일 시상식 진행... 장원 등 14명 작품자에 총상금 580만원 지급

(재)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센터장 전정희)는 제50회 전북여성백일장 수상작을 발표했다고 1일 밝혔다.

매년 10월 마지막 주 개최되는 전북여성백일장은 도내 여성들에게 문예 창작활동의 기회를 제공하며, 우리 지역 문화 예술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이번 전북여성백일장은 50주년을 기념해 오전과 오후로 나눠 열렸다. 행사 당일에는 안도현 시인의 글쓰기 특강을 시작으로 140여 명이 참여한 백일장을 한층 풍성하게 했다.

현장에서 발표된 글제 '그곳에 가면, 첫키스에 대하여, 감자를 볶으며'를 주제로 산문 79편, 운문 58편, 이주여성 3편 등 총 140편이 제출됐다.

분야별 전문가 심사를 통해 운문, 산문 각 부문별 장원 1편, 차상·차하 2편, 특별상(결혼이

주여성) 3편의 수상작을 선정했다. 특히, 이번 백일장에서는 산문의 경우 작품성이 우수해 차하 1편을 추가 선정했다. 이에 총 14명의 작품자에게 총상금 580만 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또한, 각 부문 수상작은 '글벗' 동인지에 게재되고, 수상자들의 자조모임인 '글벗' 활동을 통해 습작지도와 동인지를 발간하는 등 예비 문인으로서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전정희 센터장은 "전북여성백일장은 수많은 여성들의 삶의 고단함에 대한 한숨과 계절의 향기, 생의 찬미가 감성으로 한데 버무려진 마당"이라며, "반 백년의 역사를 지닌 만큼 앞으로 도내 여성 문인들의 발굴의 장으로 만드는 데에 기여하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수상자는 센터 홈페이지(www.jbwc.re.kr) 공고 및 개별 전화로 안내했으며, 시상식은 3일 진행될 예정이다.

/정은성 기자

스쿨 아이돌 걸그룹 호원대 '아제르' 오가오와 스폰서십... '원-원' 기대

국내 최초 스쿨 아이돌 걸그룹 호원대 '아제르(Azer)'가 생활용품 업계에서 주목받는 기업(쥬오가오)과 스폰서십을 체결했다.

호원대에 따르면 아제르는 빅마미(가수) 신연아 교수가 구성한 여성 7인조다.

인류 최초 여성이란 뜻의 이집트어로 '당당하고 자신 있게 스스로의 역사를 만들어간다'는 의미를 담았으며, 멤버 전원이 호원대 K-POP학과 2019학번이다.

이번에 진행된 스폰서십은 어려움을 받고 국내 최초 스쿨 아이돌그룹으로서 위치를 굳건히 하는 '아제르'의 활동을 지원하며 광고·홍보와 기업의 선한 이미지를 널리 알리기 위한 '원-원' 전략이다.

스폰서인 오가오는 여성의 건강을 생각하며 꾸준히 연구개발에 매진해 중소벤처기업 특허 및 우수업체로 선정된 여성 생리대가 주력군인 기업이다.

/뉴스



홍양 이씨 종중 정려



의병장 장지현 장군 묘역

무주군, 향토문화유산 발굴... 2건 지정서 교부

무주군이 무주군향토문화유산 2건을 지정하고 지난달 31일 지정서를 교부했다. 이날 황인홍 군수는 군수실에서 마을의 자긍심과 문화인식을 심어주기 위해 숨어있는 향토문화유산을 발굴하기 위해 선정된 향토문화유산 보유자들에게 지정서를 교부했다.

이로써 무주군향토문화유산은 모두 12건을 보유하게 됐다. 이들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대상은 현장 실사 후 심의에 선정된 6건에 대해 지난 8월 무주군향토문화유산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높은 2건(홍양

이씨 종중 정려, 의병장 장지현 장군 묘역)이 심의·선정됐다.

무주군청 문화체육과 김정미 과장은 "향토문화유산은 무주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지닌 귀중한 역사문화자원이다"며 "앞으로도 잠재되어 있는 향토문화유산을 지속적으로 발굴·확대해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문화재로 보존·보호·관리할 가치가 있는 문화유산에 대해서는 국가·전라북도 문화재로 지정·등록을 지원할 계획이다.

/무주=전문선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